

KORDI ISSUE PAPER



2021-1

발행일 2021.12.24.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위드코로나시대, 디지털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과 과제¹⁾

김 문 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moonjung87@kordi.or.kr)

요약

- 코로나19는 일상 속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이 빠르게 확대 추진되었음.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발전과제를 제안함.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빠르게 확대 추진됨. 현행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디지털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기기 활용법이나 온라인 피해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일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일자리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현행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디지털 능력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디지털 활용수준에서 수행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노인과 서비스 수혜자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의의가 있음.
- 다만,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향후 1) 디지털 일자리의 질적 제고, 2) 참여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일자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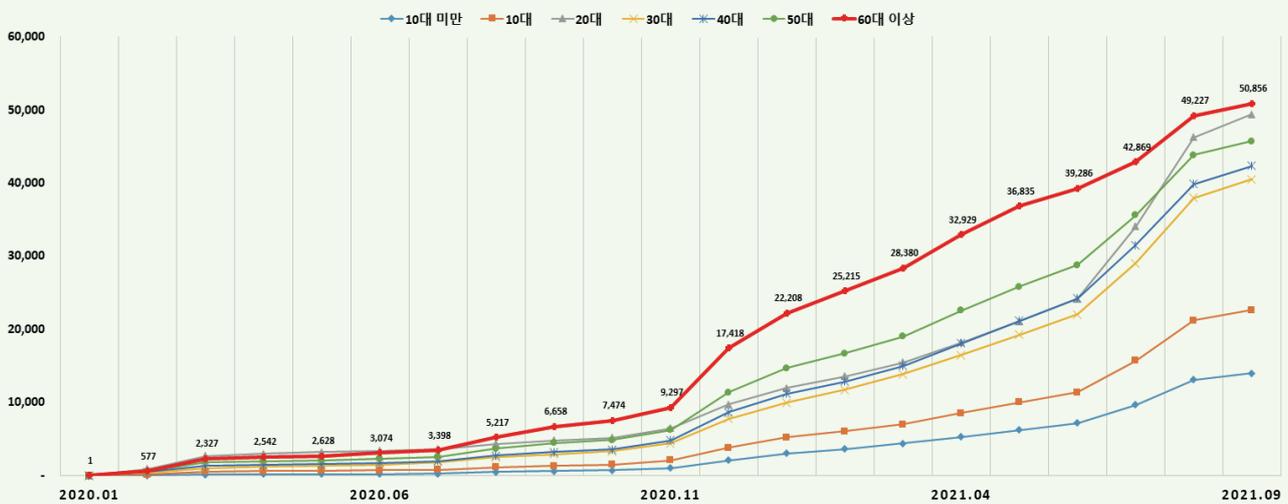
1) 본고는 제35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팬데믹,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현황과 과제: 비대면,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발제문을 요약 수정함.

1. 논의의 필요성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 일자리 보장의 불확실성 증가

- ▷ 질병관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세대(60세 이상)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고 치명률²⁾도 상당히 높아 노인세대의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
- ▷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노인세대의 코로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단위: 명)



참고) 확진자수는 일별 누적 확진자수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일자별 발생현황 2021.9.8.0시 기준

[그림 1] 연령대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 추이

- ▷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은 비대면 또는 실외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거나 중단토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2)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변화 요구

- ▷ 코로나19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노인세대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새로운 노인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뱅킹(간편결제)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온택트 형식의 생활 속 디지털화의 확산은 사회, 문화, 경제 등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노인소외, 노인배제 현상을 야기함.

2) 2021년 9월 기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은 1% 미만 수준으로 낮아진데 반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연령대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60대는 1.04%, 70대는 5.02%, 80대 이상은 17.25%로 고연령대의 치명률이 상당히 높음(질병관리청, 2021.9.8.0시 기준).

- ▷ 가까운 시일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상속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확산될 것이 예상됨으로 노인세대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와 노인세대의 디지털 관련 수요공급적 욕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디지털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사업을 개발, 추진되고 있는 단계에서, 향후 코로나19와 디지털시대에 따른 비대면, 온택트 형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그림 2] 노인세대 디지털정보화 수준(2020년 기준)

2.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활용, 온택트 노인일자리 추진 성과와 한계

1) 사업 추진 방향

- ▷ 비대면 일자리 확대와 생활 속 디지털화가 확대됨에 따라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온택트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 디지털 관련 노인일자리사업은 디지털 역량강화보다는 디지털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특히, 디지털기기 활용법 관련 정보제공).
 - 일상 생활속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대표적인)의 활용방법을 소개하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 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공익활동의 경우, 경륜전수 봉사형 사업의 형태로 '18년부터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정보제공 및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시니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형태로 '20년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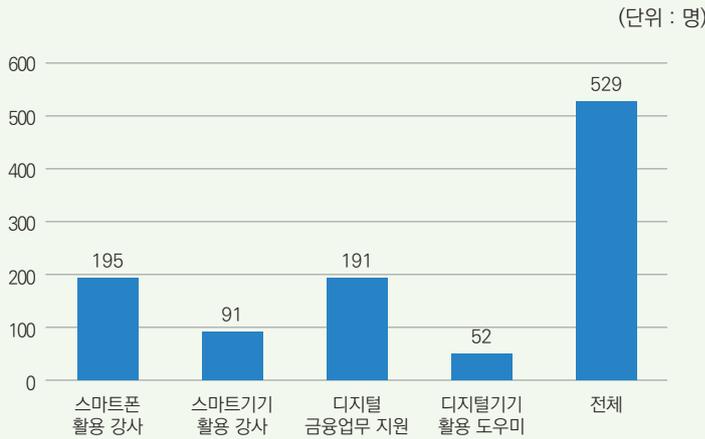
〈표 1〉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디지털 활용 일자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참여대상
공익활동	경륜전수	-기초 스마트폰 활용교육 -기초 스마트폰 소통교육 및 강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공시설봉사	-키오스크 안내도우미 -IT융합운동기기 활용 및 지도 도우미	
사회 서비스형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스마트기기 활용강의* * 키오스크,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간편 결제 활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만 60세 이상
	공공전문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정보 수집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ICT를 활용한 치매예방 지도 -시니어안전모니터링	
	기타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강의 -코딩 교육 -에너지 해설사 -시니어방송모니터링	

자료)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2) 디지털 정보제공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 디지털 정보제공 관련 일자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소개와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최근에는 간편 결제, 스마트뱅킹으로 인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강사 육성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참여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노인세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베이비부머세대(만 60세 이상)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자의 욕구와 수요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 ▶ 또한,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Job)'의 개념보다 '직무(Task)'의 개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그림3-1] 유형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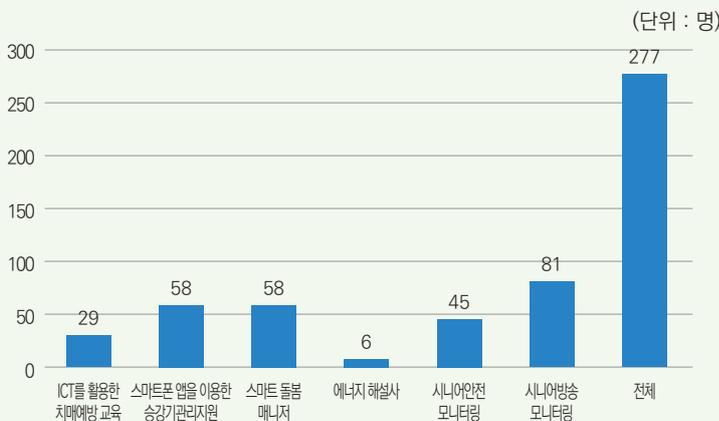
[그림3-2] 성별 추진실적

자료)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그림 3] 디지털 정보제공 일자리 추진 현황(2020년 기준)

3)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일자리는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됨. '20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21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추진 예정임.
- ▶ 기존 노인일자리에는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50% 정도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여성의 참여비율이 7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디지털 기기 활용 일자리는 남성과 여성의 참여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4-1] 유형별 추진실적



[그림4-2] 성별 추진실적

자료)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그림4]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일자리 추진 현황(2020년 기준)

4) 한계 및 문제점

- ▶ 디지털 관련 정보제공 및 디지털 기기 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됨.

(1) 기존 노인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부족

- ▶ '20년부터 신규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살펴본 결과, 향후 디지털 관련 노인일자리는 신노년세대로 정의되는 베이비부머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일자리(사회서비스형 일자리)형태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 그러나 기존 노인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도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일자리만 확대 운영하는 것은, 향후 후기 고령자(70~80대)를 위한 디지털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2) 디지털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 우려

- ▶ 현재 노인일자리아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 중,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 복잡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한 스마트폰 앱 조작을 통해 안전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일자리로 저평가 될 가능성이 우려됨.

4. 지속가능한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발전과제

- ▶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노인일자리아업의 새로운 시도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1) 디지털 노인일자리아업 질적 제고

- ▶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 노인일자리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디지털 노인일자리가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일자리로 저평가 될 수 있음.
- ▶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노인일자리아업이 단순히 디지털을 접목시킨 일자리가 아닌,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공공데이터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아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디지털 노인일자리아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2) 다양한 디지털 일자리 유형 개발 및 보급

- ▶ 현행 디지털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 안에서 확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세대(60대 초중반)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유형으로 기존 노인세대 또는 70~80대 후기노인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일부 공익활동 유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70~80대 후기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도 존재하기는 하나,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기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향후 노인세대로 진입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신노년세대와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인 후기노인의 특성과 디지털 활용능력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가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일자별 발생현황 2021.9.8.0시 기준 추출.

김문정.(2021). 팬데믹,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현황과 과제: 비대면,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제35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 한국노인인력개발원.